



부활절 예배드라마 “평화의 왕”의 본당 리허설

부활의 기쁨 온누리에!

깊은 눈물가운데 맞는 부활절입니다.
자식 잃은 라헬의 탄식소리가 들리는 부활절입니다.
왜 하필 이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 어린생명들인지 원망도 합니다.
올해는 이 절기를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갖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지며 용기를 냅니다.
그래도 부활절을 지키려 합니다.
슬픔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의 사건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 슬픔을 품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실을 떠난 부활이 아니라 현실을 던고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실로 부활절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것이며,
이웃을 향하여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헬과 함께 부를 것이며,
나사로와 함께 부를 것이며,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부르실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거룩의 노래를 부르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으로 존귀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빛의 나무로 영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부활절, 참된 평화 되새기는 소중한 절기

자신을 비워 세상을 구하신 주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소중한 사건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는 말씀처럼, 자신을 비워 세상을 구한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

한 방법일 터이다. 올해 부활절 예배드라마의 제목도 “평화의 왕”이다. 아리마대 예수의 눈으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다.

전통이 된 부활절 예배드라마

지난 2012년 주님의교회에서 첫선을 보인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절기를 되새기는 좋은 사례로 교회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 예배드라마를 위해 4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성

도가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2013년 12월 주제와 극본이 완성되었고, 지난 2월초 배역 선정을 마치고 연습을 시작했으며, 4월 11일에 소품과 의상 제작이 완료되었다. 지난주에는 무대 확장 공사까지 마무리되었다. 무대는 3D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현실감을 살렸고, 특히 음악과 음향을 강조했다. 작년보다 25% 축소된 예산으로 힘들었지만 알차게 준비되었다.

20일 1부예배는 9시, 2부 11시 30분

에 진행되며, 이웃초청예배인 3부는 오후 4시에 드린다.

부활절 기념음악회 협연

한편 4월 23일 수요일예배가 부활절 기념음악회로 드려진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헨델의 메시아가 시온찬양대와 세종대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펼쳐지며, 세종대학교 콘서트콰이어가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 함글함글에서는 2014년 연간특집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려 애쓰고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간증, 수필, 논설, 독후감, 여행기, 서간문 등)으로 hamletter@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신겠습니다. **함글함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

누군가 네게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묻는다면 호스피스를 한 일이며 그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주저 없이 말 할 것이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호스피스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며 함께 울 수 있었던 수천 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셨던 목회자님들이 다이아몬드보다도 가장 값진 보석이다.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인 것 같다. 살아있기에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다.

22년 전 담임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 호스피스를 맡기셨을 때 갈등했지만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환자들을 맡기셨을 때도 항상 두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갈 수 있는 용기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내 능력, 내 결정이 아닌 등 뒤에서 나를 살포시 밀어주시는 느낌으로 가곤 했다.

어찌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외면할 수 없어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수년을 만나며,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들을 체험하게도 하셨다. 생각해 보면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는, 인생여정의 도구들로 길잡이로 나에게 맡기심을 알 수 있었다.

시간도, 거리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부르면 가게 하는 데는 내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순간순간 기도 가운데 나에게 물어 오시는 마음의 울림 때문이었다. “양자야 가서 봉사할래? 누워서

봉사 받을래?”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환자나 가족을 위해 밀반찬을 마련하고 죽을 쑤다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며 멈추고 싶을 때 나를 깨우시는 선한 양심의 노크 소리가 있다. “죽 쑤어다 줄래, 누워서 받아먹을래?”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생명 바쳐 선교했지만 한영훈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선교사님이 계셨다는 간증을 들었다. 호스피스 현장은 옆에 가족대신 있어만 줘도, 밀반찬 몇 번 해다 드려도, 발마사지 등마사지 몇 번 해드려도, 목욕 몇 번 시켜드려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확할 수 있는 황금어장임도 체험 할 수 있었다.

20년 전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세워주시고 호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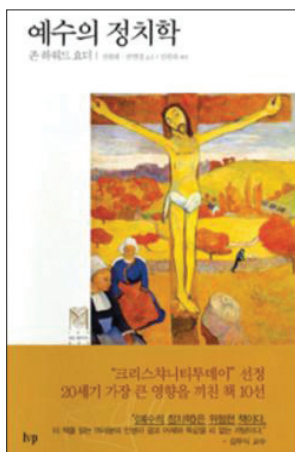
인으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칭찬해주는 사람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는 호스피스 봉사지만 그 안타까운 환자에게 가지 않고는, 만나지 않고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는,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씨를 심어주신 수많은 호스피스 봉사자님들 진정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때문에 내 생명 이 땅에 얼마를 두실런지 머무는 동안 가는 길 멈추지도, 쉬지도, 포기하지도 않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가 계신 내가 섬겼던 환우 분들에게서 이렇게 소개 받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파했을 때에 함께 있어주었고, 함께 울어 주었고, 모르던 하나님을 소개시켜준 친구였다”고. **김양자** 장로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예수의 정치학>



존 하워드 요더 저, 신원하 권연경 역, IVP, 2009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는 현대 메노나이트파를 대표하는 신학자로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평화주의자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한 평화주의 윤리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끝까지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오늘 우리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현실과 타협하며 말씀을 곡해하는 우리들에게 저자는 비폭력적 저항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직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김정형 목사

>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선정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 도서도 환영합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4



마천동 남천경로당
80여 분 어려운 어르신들께
한 주일 두 번, 마음을 엮어
따뜻한 점심 올리는 착한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조병길 안수집사(010-5419-3050)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8

啓示錄 (계시록 Revelations)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 1:1)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주다.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어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 또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인간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행위를 가리킨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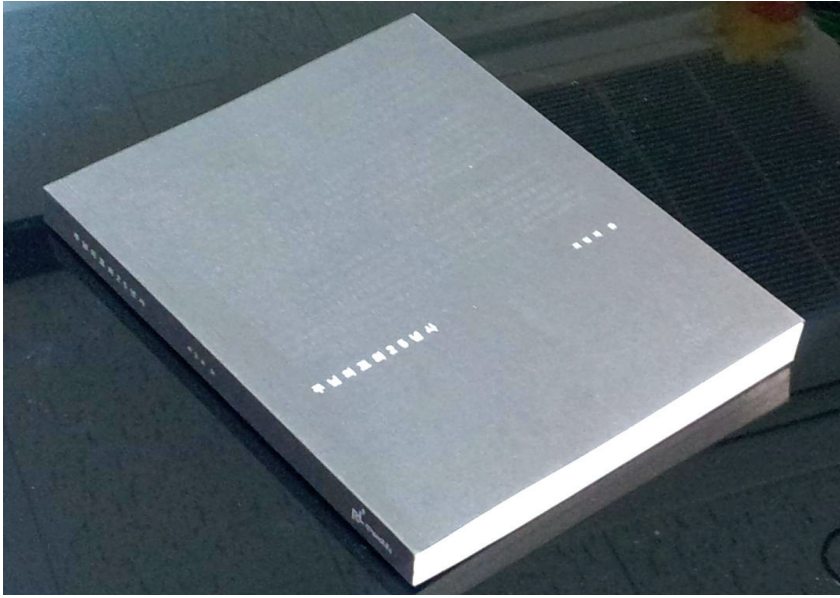
★啓(열 계): ‘문, 창문, 집’을 뜻하는 戶(집 호)와 ‘두드리다, 치다, 위하다, 힘쓰다’의 뜻을 지닌 攴(칠 복)의 변형체 攴(등 글월 문 방)과 ‘말하다’의 의미가 있는 口(입 구)를 합쳐 ‘문을 두드리며 말로써 소리쳐야 열린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示(보일 시): ‘모으다’의 뜻이 있

는 一(한 일)에 제사그릇을 상형화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음식을 모아 제기에 올리고 제사 드리며 신에게 정성을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錄(기록할 록, 새길 록): 金(쇠 금, 금 금)에 畝(밭을 록)를 결합하여 ‘쇠를 깎아 그림이나 글자를 새긴다’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함글함글

〈주님의교회 25년사〉 발간



2014년 부활절에 발간된 〈주님의교회 25년사〉. 변형신국판 456면이다.

2014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교회 25년사〉가 발간되었다. 〈주님의교회 25년사〉는 주님의교회가 출발한 1988년부터 25주년이 되는 2013년 6월까지의 사실을 다루고 있다. 〈주님의교회 25년사〉는 또한 주님의교회가 성년을 넘긴 25주년을 맞아 기획한 기념사업 중 하나로, 논의부터 발간까지 2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2002년에는 15년사 추진

그동안 주님의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로 남기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2년에는 15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료 수집과 원고의 집필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기획은 우여곡절 끝에 90여 쪽에 달하는 미완성 원고를 남기고 2004년에 중단되었다. 이어 2006년 6월 정기당회에서 20년사를 편찬하기로 논의하고, 20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사자료 보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전문성과 공정성 중시 필자 선정

교회 창립 25주년을 1년 앞둔 2012년, 교회 내에서 25년사 편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6월 25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편찬을 위한 필자 섭외가 진행되었다. 7월에는 교회사 집필에 좀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자 교회 외부에서 교회사

를 전공한 집필자를 선정했다. 이 무렵부터 미발간 ‘주님의교회 15년사’ 원고를 포함한 역사자료의 수집과, 여러 초기 교회 관계자 인터뷰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회가 이룬 모든 것 주님의 뜻

2013년 2월에는 그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회사의 집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교회의 정체성에 따라 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임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25년사의 구조와 내용, 편찬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계속되는 추가 인터뷰와 자료 확인을 거쳐 9월 부록을 포함한 1차원고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실의 확인과 부록의 전교인 열람, 사진 자료의 검증, 초기 창립 교인 및 당회원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면서 2014년 2월까지 수정 집필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디자인과 인쇄, 제본의 과정을 거쳐, 본문 303쪽, 부록 153쪽, 총 456면으로 완성되었다.

교회는 건물 제도가 아닌 공동체

글을 쓴 최영재 박사는 “주님의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제도들이 대부분 창립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창립정신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고, 25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에” 초

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관점을 중시해서 서술했다”고 말했다.

교회사 편찬을 시종 주관한 25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인 박대길 장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교회이므로, 역사의 주체도 어떤 한 두 인물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교회사의 시대 구분, 제목, 문장 기술에서도 되도록 주님과 주님의교회를 주체로 했다”고 밝히면서, “주님의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이를 공동체의 전통으로 정리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부여하여,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하려는 것이 가장 큰 뜻”임을 강조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주님의교회 지난 25년은 부르심에 응답한 시간”이었으며, 이 교회사의 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질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글함글



최종 단계 원고에 대해 논의하는 25년사 편찬위원회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그리스도인이 쓰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 편 1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들 중 다음과 같은 말들은 무속, 토속신앙, 도교, 불교 등의 사상이나 교리가 담겨져 있어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으므로, 이 용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 아미타불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본래는 중이 평생을 두고 아미타불을 외우지만 아무 효과도 없다는 뜻에서 왔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염불(空念佛) 본래 불교와 관계된 말로 신심(信心)이 없이 입으로만 외는 헛된 염불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 이 말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보살 같다 ‘보살’은 ‘위로 부처를 따르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의 버금이 되는 성인’의 뜻이며, 흔히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을 일컬어 ‘보살 같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 적합한 말은 아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음흉하거나 요사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고 마음이 지나치게 어질고 순한 사람을 가리켜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이라고도 하는데, 비유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할 말이다.

신선놀음 신선이란 도를 닦아서 인간 세상을 떠나 자연과 벗하여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오래 오래 산다고 하는 초월적인 상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편안한 삶을 가리켜 ‘신선놀음이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 말이 못된다.

도사(道士) 어떤 일에 오랜 경험이 있어 능숙하게 해 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본래 도교에서 도를 갈고 닦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성직자나 직분자에게 이 말을 비유하여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 예컨대, ‘목사님이 길 찾는 데는 도사야’와 같은 말은 적절하지 않다.

> 이 면은 교회의 세대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번호에는 고등부에서 기획, 취재, 편집을 맡아주었습니다. **함글함글**

새 출발, 설레는 마음, 새로운 예배당에서

다목적교육관으로 옮긴 고등부



지난 3월 30일, 다목적교육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축하와 설교, 입당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 예배라 긴장감도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과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곳이 내 예배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도록 빨리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 기간을 가지는 중이지만, 이 곳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에 더욱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곳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생각보다 빨리 피어난 벚꽃 앞에 모두가 행복하고 설렌 봄날, 고등부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예지 교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입당 후기입니다.

예배당이 천장도 넓고 체육관으로 쓰이는 곳이라서 예배 후에 축구나 농구를 하며 교제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조금 아쉬운 점은 예배 전과 후 매번 의자를 나르고 치워야 한다는 점.

오지석 1학년

새 교육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겼다. 예전 예배당에서는 예배 후에도 좀 더 교제할 시간이 많았던 반면, 새 예배당은 학생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다.

박다운 사역교사

예배당은 5층인데 5층엔 여자화장실이 없어서 여학생과 여선생님들이 매번 왔다갔다 하시기 번거로울 것 같다.

정남희 고3

천장이 무척 넓어서 시원한 느낌,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라서 좋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전 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덜 느껴지는 것 같고, 차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병곤 고3

시설이나 환경이 나아진 점이 좋다.

사역교사들이 일하기 좀더 편한 환경인 것 같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좋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줘야 해서,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

이경태 양육교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라 매우 산뜻한 느낌이다. 하지만 예배 후에 농구부 아이들에게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과 대화할 공간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다.

이성희 사역교사

새 건물이라 깨끗하고 깔끔하다. 찬양팀 활동을 하는데, 무대가 좁은 점이 아쉽고, 천장이 높아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이 아쉽다.

김지윤 고1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높이 있어서 예전 예배당에 비해 훨씬 보기 편하고 좋다. 여자 화장실이 예배 드리는 층에는 없어서 아래 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다. 끝나고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점이 아쉽다.

김수연 고3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나, 불편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새로운 곳에서의 예배는 설레고 새롭다. 예배 드리는 곳이 익숙해지고 늘 당연하고 일상적인 느낌이었는데, 이번 이사를 통해 우리 고등부 내에 좀더 새로운 분위기와 바람이 드는 것은 확실하다.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김예지 양육교사

새로운 공간에서의 예배는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음향적인 문제가 조금 아쉽고 (앞으로 개선될 점으로 피드백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배 후에 찬양팀 무대 셋아움을 정리할 때 농구팀에게 쫓기듯이 하게 된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조금 험한 느낌이 든다. 의자정리 등 예배 전후로 할 일이 많아서 남자 사역교

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신하림 사역교사

마음 한구석 정든 예배당을 떠나는 아쉬움을 안고 들어선 새로운 예배당. 사방의 넓은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을 선물 받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로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세워졌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더욱 더 밝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황수진 양육교사



새 공간으로 옮기는 기쁨에 다들 손이 바쁘다.

다목적교육관 개관

주님의교회 25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건립되어, 지난해 12월 27일 준공식을 갖고 정신학원에 기증된 다목적교육관이 정신학원의 개학을 맞아 개관했다. 지상 6층 연면적 2,548.94㎡로 건축된 이 다목적교육관은 도서관, 다목적교실, 체육관, 문서고 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학원에서는 방학동안 구 도서관에 있던 도서와 자료들을 재로 정리하고, 도서관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정신학원에서는 주로 도서관과 3, 4층의 다목적 교실을 사용하며, 주님의교회에서는 5층 체육관을 사용하게 된다.

이미 주님의교회 고등부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5층 체육관 공간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새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학원선교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신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신학원과 좀더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약정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왼쪽 사진부터

1. 도서관 내부 전경
2. 도서관에서 바라본 정원
3. 도서관 2층 휴게 공간



군 선교 세례식



철원 6사단 신병교육대 신병 86명의 세례식이 지난 3월 15일(토) 오후 2시 신교대 실로암교회에서 은혜 중에 거행되었다. 먼저 주님의교회 참석자 29명의 입장과 함께 200여 장병의 우렁찬 찬송으로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6사단 이정호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조성득 장로의 기도 후 홍성욱 목사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주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입히신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시 오지 않을 젊음을 기쁨, 소망, 비전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권면하였다.

이어서 은혜와 감동 속에 세례식이 진

행되었으며, 그 중 김성조 훈병은 상기된 모습으로 대학 기독교모임에서 예수님을 알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등 수세 장병들의 모습이 너무도 늠름하였으며 군선교야말로 황금어장임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주님의교회 이름을 새긴 성경을 건네면서 금년 첫 군 세례식의 모든 행사를 마쳤으며, 군선교 팀장인 이우풍 집사는 금년에 예정한 총 5회의 세례식 중 오는 5월 24일(토) 3사단에서 가질 두 번째 세례식에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권하였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이른 아침 8시에 버스로 출발한 일행은 안개 속에 2시간 반을 달려 먼저 철원군 동송읍 소재 제2땅굴(1975년 발굴, 서울북방 106km, 길이 3.5km 남방한계선 내 1.1km)과 승리전망대를 견학하고 신병대 장병식당에서 푸짐한 병식(兵食)을 들며 남북대치의 현장과 든든한 안보태세를 체험하고 분단의 비극이 속히 풀려지기를 기원하며 세례식 후 교우간의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 속에 교회로 복귀했다.

왕진무 집사/군선교팀

<함글함글>의 필자는 어디에?

주님의교회에서 펴내는 선교지 <함글함글>에 실릴 글의 필자를 찾습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1996년부터 문서 선교를 위하여 발행해 온 교회 신문입니다.

누구의 글이든, 어떤 글이든 기다립니다.

2면에 연재중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5면에 수록하는 신앙칼럼 “로템나무”,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섬기는 손”과 같은 고정란 뿐 아니라, 시와 수필, 신앙간증, 사역보고, 공지사항, 카툰과 만평 등,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글이라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특정한 사람이 강조되거나 돋보이는 글은 게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에 대해서 보도기사에 서는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주님의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필자로 모십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주님의술
무지개잔치**

모두의 장, 행복의 장, 나눔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2014. 5. 3. Sat. 10:00 am ~ 3:30 pm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놀이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공연마당
 에어바운스 바이킹 미니 기차레일 키즈 라이더 스포츠센터, 레이스게임 뮤직게임(뽀빠이) 등	 가족사진관 페이스페인팅 카네이션 볼펜 만들기 비누 / 풍선 만들기 등	 짜장밥, 주먹밥 떡볶이, 닭강정 핫바, 음료수 파인애플 바 아이스크림 등	 가족뮤지컬 "빨간모자 요나"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

2014년 입교세례식

2014년 입교세례식이 4월 13일 4부 예배에서 진행되었다. 입교자 33명, 세례자 36명이 이날 안수를 받고,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서원했다.

입교자 명단

박경애 양희진 지은화 권도형 김수연 김주영 김준희 김지민 박경모 박지민 서나영 서주희 손성환 송지원 신지호 안지수 엄지원 오지석 유승주 이대현 이병무 이수빈 이재준 이찬빈 조희주 최윤진 최주희 황준환 강신애 김새롬이 서희정 이성서 최민정

세례자 명단

권대원 김귀숙 김병호 김정숙 김정자 김현정 김효선 박진경 신영미 전춘순 정구인 조성례 홍경의 홍성운 황진아 강민정 강은서 김지민 김지현 김현경 박영후 박혜진 배서영 여혁진 이다현 이인국 이재승 이정훈 이형근 전연주 정남희 강성준 권보라 양태진 유하나 이금비

‘비움’은 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10)

헬라어 원문에서 ‘받은’이라는 동사는 현재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지금도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준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다르고, 도덕의 기준이 다르며, 생명의 기준이 다르고, 진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흔히 차별화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이해 못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이해 못하는 것, 한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이상이 ‘다름’을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는 사해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국제적인 축구 경기가 있으면 자기 나라 팀을 응원하는 것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으로 ‘핍박’을 면하거나, 이겨낼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비우고,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주님의 뜻을 채울 때, ‘의를 위한 핍박’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나를 핍박하는 그들도 나와 같은 주님의 형제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단신

베트남어 초급반 강좌 개강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베트남어 초급반 강좌 5기가 3월 8일에 개강했다. 2012년 3월 1기를 시작한 이래, 6개월 과정으로 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왔다. 베트남어를 배우려는 성도와 일반인들 모두에 개방되어 있으며 강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투하(Thu Ha)선생이다. 5기에는 24명이 신청하였는데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동남아팀의 김진수 안수집사는 “동 강좌가 의료선교와 교육선교 그리고 견습선교사 파견에 대비하고 다문화 가정과도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글함글

알림

- ▶ 예수친구사역 3기 훈련생의 경건 훈련세미나가 4월 11일~12일에 가락재 영성원에서 개최되었다. 일간 개최되었다. 영성학을 전공한 장신대 유해룡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 ▶ 2030 부부분과위원회에서는 4월 13일(주일) 예수친구사역 개강을 하였다.
- ▶ 성금요일예배(The Last Week)가 4월 18일(금)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 ▶ 안수집사회 임시총회가 4월 13일(주일) 오후에 지하식당에서 개최되었다.
-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가 4월 14일(월)~4월 19일(토) 새벽에 일주

교회사역일정

- | | |
|-----------------------|------------------------|
| 4. 21 (월) : 평양노회 | 5. 3 (토) : 무지개잔치 |
| 4. 23 (수) : 부활절 기념음악회 | 5. 4 (주) : 어린이주일, 유아세례 |
| 5. 2 (금) : 금요기도회 | |

* 4월 정기 / 임시당회 결과사항 보고

- 베트남 최병관선교사 파송연장 건, 협력선교사(박혜경, 고승재) 허입 건을 승인하다
- 김우림, 유원식 씨를 협동장로로 받기로 하다.
- 의사소통모임(가칭)은 기획조정위원회 소속, 간담회 형식으로, 대표자들로 하기로 하다.

함글함글 카툰



너의에게 고기가 있느냐?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주님의 선물 무지개잔치

나눔회원을 모집합니다

모두의 장, 행복의 장, 나눔의 장이 되기 위해 전교인의 나눔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재능나눔
(스텝 지원)

놀이마당 안전요원 46명, 체험마당 진행요원 26명, 먹거리마당 봉사요원 10명

행복나눔
(선물 후원)

원구용품, 문구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디지털용품 등 새 제품

“신청합니다” 4.13(주일), 4.20(주일) 1층 로비 나눔데스크